

M-Safer 도입 1주년 기념 이벤트 개최

협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M-Safer' 도입 1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와 정보통신부·SKT·KTF·LGT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명의도용의 불법성 인식 확대를 위해 M-Safer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최신 DMB 수신가능 PMP 및 외식상품권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7월 중순 M-Safer 홈페이지(www.msaf.or.kr)를 통해 발표된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M-Safer는 핸드폰 신규 개통 시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 사실을 이메일로 본인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개통 현황 조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조회한 핸드폰 개통현황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민원 처리 프로세스도 안내하고 있다.

향후 협회에서는 M-Safer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명의도용으로 인한 재발 방지 서비스 ▲미성년자 명의도용 보호 방안 등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등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명의도용방지팀(02-580-0512)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협회는 지난 6월 30일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에 특허청·KTF·마케터잡·패션데이·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등 총 12개 사이트가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심의를 통과하고 인증서를 취득했고 밝혔다.

이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5개 사이트가 신청했으며, 이 신청서를 토대로 협회는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최종심의를 통해 우수 사이트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를 취득한 업체(기관)는 특허청(특허청), KTF(도시락, 커플파이, ktf.com), (주)인포하임(마케터잡), 에듀하우즈(주)(유학네트), (주)정호코리아(패션데이), 한국발명진흥회(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명의도용방지센터(명의도용방지서비스), 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10개 사이트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시스템보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특허청·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개 사이트가 인증심사에 합격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 발송 시 수신거부 방법안내 마련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만4세 미만자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 마련 등 인증신청 업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폭 개선됐다.

○문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사무국(02-580-0533~4)

2006년 CPO협의회 동경워크숍 개최



협회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2006년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협의회 동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06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및 방향에 대한 내용 논의 및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소개와 함께 작년 4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효과를 학습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견학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또 워크숍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내용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일본의 개인정보관리수준은 한국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부족한 상태인 듯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일본의 경제산업성 Saito 사무관으로부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갖는 의미와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행태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문의: 정보화기획팀(02-580-0533)

SKT 김신배 사장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개최



협회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은 5월 정기조찬회를 지난 5월 16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이 '혁신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통신시장 현황 및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SK텔레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사장은 "SK텔레콤의 해외사업은 국내통신시장 이후(Beyond do mestic telco)"라고 정의하며, "SK텔레콤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멕시코 등의 사업자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1이동통신사업자로서 국내에만 안주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특히 HSDPA 상용화를 지렛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향한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채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3~4G 이동통신 시장경쟁에서 우량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신 전공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 필요하다. 국내의 구분 없이 내장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김사장은 강조했다.

○문의: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3)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임충식 청장 초청 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26일 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에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임충식 청장 초청 '제23회 정보통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임충식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연사로 나서 '산업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 관련 업계·학계·연구계 사람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포럼은 지난 99년부터 정보통신인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23회를 맞이하여 협회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정보통신포럼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문의: 고객사업팀(02-580-0662)

2006 LBS산업협의회 춘계 워크샵 개최



협회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LBS 산업 활성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발표와 함께 LBS 서비스 동향 소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논의를 위한 '2006년 LBS산업협의회 춘계 워크샵'을 정부·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6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정보보호진흥원(KISA)·KT·한국위 치정보·KTF·캡스 등 이 참가해 위치정보에 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다

음은 이 날 발표된 내용의 요약본이다.

▶ LBS 활성화 정책 및 위치정보보호가이드라인(안) 소개(MIC, KISA)

지난 해 1월 제정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 설명 및 정부에서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더불어 위치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총 10개 항목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 위치측위 고도화 현황 등 주요활동(사무국)

최근 성폭력·미아 방지 및 재난구조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 긴급구조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측위고도화 추진활동 현황에 대한 발표. 관련 학계·연구계·소방방재청·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측위고도화추진반은 미국 및 일본의 GPS 보급 의무화 등 해외 법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

▶ 위치기반서비스 동향(KT, 한국위치정보, KTF, 캡스)

산업계의 LBS 서비스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 하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WBro와 지상파 LBS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개요 및 장점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처음 소개.

○문의: 정보화기획팀(02-580-0532)

광산업진흥회와 ‘공동협력협약서조인식’ 개최



협회는 지난 5월 16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정보통신산업과 광산업의 공동발전 및 육성·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광산업진흥회(KAPID)와 업무전반에 대한 ‘공동협력협약서조인식’ 행사를 개최했다.

양 기관의 상근부회장(이교용, 전영복) 및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동협력협약서 조인식에서는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및 신규 공동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KAPID는 2000년 광산업 육성 진흥 및 광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광산업단지인 광주 첨단산업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경영기획팀(02-580-0562)

한국IT리더스포럼 대전·충청지역 교류행사



협회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IT포럼 대전·충청지역 교류행사를 지난 6월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덕밸리벤처연합회 구본탁 협회장이 ‘대덕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구본탁 협회장은 강연에서 “대덕의 경우 연구원 창업기업이 전체 800개 기업 중 58%에 달한다”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적 실리콘밸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연을 전개했다.

구 회장은 벤처기업을 자전거 바퀴 샬(스포크)에 비유하며 “살은 많지만 아직까지 허브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벤처기업간 공조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웨덴의 ‘시스타’나 핀란드의 ‘올루’ 같은 ‘허브 앤 스포크’ 형태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KAIST CT 대학원 원광연 원장이 “CT산업(IT기반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포럼이 끝난 후, IT리더스포럼 회원들은 ETRI가 개발한 디지털액터, 특허번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광대역통합망(BcN)·지능형 로봇·와이브로 등에 대하여 성과 시연 자리를 가졌다.

○문의: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02-580-0533)

IHD, 전국 순회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IHD)는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과 공동 주관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후원하는 '전국 순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했다.

국내 9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실시된 전국 규모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발전에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교육은 6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대전·광주·제주 등을 거쳐 6월 28일 대구까지 전국 10개 지역의 기간통신사업자(KT·SKT·KTF·LGT 등) 대리점 및 영업점 직원 총 2800여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법 제도와 실무사례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실무자들의 인식전환 및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문의: IHD 인재교육팀(02-563-2377)

IHD, 공개SW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공개 SW 기반 핵심 개발 및 기술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체 요구인력 양성을 통해 공개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 부터 약 5개월간 '공개SW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주관하고, 리눅스 전문교육 기관인 리눅스원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전산학과 관련 대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교육은 윈도 및 유닉스 기반 고급 개발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한 리눅스로의 전환수요까지 창출한다는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온·오프라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고급 개발자 4개 과정과 시스템 엔지니어 4개 과정을 개발하여 총 8개 과정이 20회에 걸쳐 진행되고, 과정별 1일 8시간 총 5일간 4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료증 발급 및 커뮤니티 지원, 주관기관의 실무 세미나 무료 참여기회 부여, 이직 및 전직을 위한 취업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oss.ind.or.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의: IHD 인재교육팀(02-563-2377)